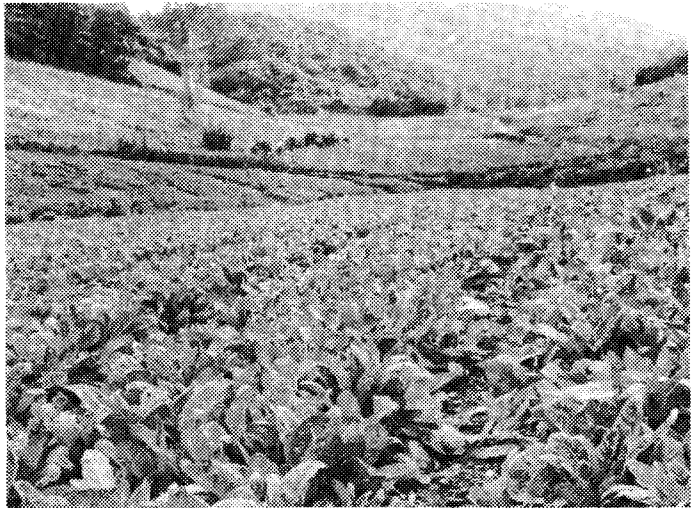


강원한약재 '1군1명품' 육성



강원도 농촌진흥청에서 강원도 농촌진흥청을 차별화하기 위해 토양 다른 지역과의 약초품종을 구분 5개 한약재를 「1군1명품」으로 육성키로 했다.

가원이나 1군1명품

고령지역재 경쟁력제고 차원 단체활성화로 생산량 조절도

19일 강원도농진원에 따르면 평창의 토당과와 정선의 황기는 강원도의 이름난 한약재나 황기의 경우 약초시장은 충북제천에 형성돼 있어 주산지 가평선이라는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는 것. 도농진원에서는 강원도 정을 감안 주로 지역의 의생약협회와 생약영농조합법인 등 특수단체를 활성화시켜 생산자와 약초를 분리 알릴 계획이며 토당귀도 평창의 명품이므로 집중재배할 계획이다.

또 지역의 기후에 따라 습기가 많은 곳에서 잘 자라는 강활은 황성과 인제에서 명품으로 키우고 고산지대에서 재배할 수

있고 고령은 태백의 주산지목으로 육성을 예정이

다. 이밖에 뿌리를 거담제로 쓰는 단삼은 자생지인 양구의 명품으로 살리기로 했다.

도농진원 관계자는 「대부분의 약초가 고령지역에서 잘 자라는 만큼 강원도의 지역적 특성을 잘 살릴 수 있다며 「명품화 추진하면서 특수영농법인을 중심으로 생산량을 조절할 경우 경쟁력 향상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의 약초수출입협회 가 지난해 실시한 수입한

의 규격품유종 등 제도적 변화와 경기침체에 따른 영향으로 폭이 되고 있다. 지난해 품질검사를 받은 수입한약재는 녹용, 녹각, 우황, 사향, 주사 등 3백11품목, 7천5백14건으로 이를 급증으로 확산하면 9천7백63만7천달러에 상응, 85년도 1억2천4백66만달러보다 22% 감소했다.

품질검사 건수가 가장 많은 품목은 3백28건을 기록한 녹용(0.1톤 총 8만3천9백96명), 2천2백42만7천달러에 이른다.

△배명철 고문 △박만중 고문 △문대규 부회장 △정형호 부회장 △황인구 부회장 △이용용 이사 △김동현 이사 △이문섭 이사 △한영환 이사 △배성환 이사 △권준희 부장 △광역시 지부장 △김성배 경기 지부장 △이인기 경기포천군 사무소장 △허수강원춘천시 사무소장 △최상환 경북경주시 사무소장

△배명철 고문 △박만중 고문 △문대규 부회장 △정형호 부회장 △황인구 부회장 △이용용 이사 △김동현 이사 △이문섭 이사 △한영환 이사 △배성환 이사 △권준희 부장 △광역시 지부장 △김성배 경기 지부장 △이인기 경기포천군 사무소장 △허수강원춘천시 사무소장 △최상환 경북경주시 사무소장

사설

전량수매조건 무의미

매년 국내산 지황 수매사업이 말짱이다. 우리생약살리기 일환으로 95년 당시 생약협회가 다수확품종인 '북경1호'를 들여와 농가에 보급한 것은 국내 지황 생산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 지황을 수급조절품목으로 묶어 수입을 제한하고 있기는 하지만 값싼 수입산에 밀려 국내산지황이 거의 자취를 감춰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내산 개량종 지황 수매사업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뒷받침 되지 못한채 더구나 이듬해 파종기를 훨씬 지나 이뤄지는 소비단체들의 늦장수매로 생산능가만 올상이다.

국내산 수매에 미온적태도로 일관하는 소비단체들의 반응은 오히려 예외는 아니다.

한약재 수급조절위원회는 지난해 11월 7일 열린 제17차 회의에서 국내산 지황의 전량수매를 조건으로 중국산 1천톤 수입을 결정한 바 있다. 수급조절품목인 지황을 그것도 한창 수확기인 11월에 무려 1천톤을 수입해 오면서 국내산 전량수매라는 단서조항은 너무도 당연한 조건이다.

그런데 수입결정한 1천톤 중 3백톤이 이미 배정된 상태에서 고작해야 14톤에 불과한 국내산 수매가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수확한지 4달이 지나도록 창고에 쌓여있으니 답답할 노릇이다.

구체적인 수매시기와 하한가 계약도 없이 그렇다고 1천톤 수입지황 배정여부에도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국내산 전량수매」조건이라는 것이 조건으로서 무슨 의미가 있는가.

소비단체입장에서 보면 kg당 일천원 선에 불과한 수입지황에 비해 5천원선을 호가하는 국내산이 가격면에서 상대적으로 부담이 되는건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는 목전의 이익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사는 길을 열어가는 지혜로움이 필요한 때이다.

만약 이대로가다가 국내생산기반 붕괴로 완전개방이 불가피하게 되면 생산농민은 물론이고, 지금까지는 쿼터품 독식으로 당당한 이익을 챙긴 속지황제조업소들도 타격을 입게될 것은 자명한 이치다.

5배 이상 아니 그보다 더한 10배 이상 비싼 가격차에도 불구하고 국내산지황수매는 조건없이 행해져야 할 것이다. 하루빨리.

계간적 성과이행 한약재종류제거

한약재에 들어있는 해로운 중금속 성분을 걸러낼 수 있는 기술이 국내에서 개발됐다. 강원대 화공과 강의종교수는 계간적성분인 키틴과 키토산을 이용해 만든 장치로 지난 1년간 실험한 결과 화학 약제에 들어

있는 유해 중금속을 97% 이상 없애는데 성공했다고 최초 밝혔다. 강교수가 개발한 방법을 크게 두가지로 나누는 키틴과 키토산에 단백질이나 아미노산 분자를 덧붙여 중금속을 많이 흡착할 수 있는 유도체를 만

들 후 이를 재료로 거름장치를 만들었다. 다른 하나는 키틴 키토산 유도체를 알갱이 나 가루로 만들어 탕재에 넣어 중금속을 걸러낼 수 있도록 했다. 강교수는 「한약재에 중금속이 많이 들어 공중으로 많이 들어 가 있는 인삼 같은 조

귀찰출작약 제피등 6가지 약재를 걸러본 결과 중금속을 98% 제거하는 효과를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강교수는 이번 개발한 중금속 제거기술을 이용해 일반 가정용과 한의원용 중금속 제거기를 만들 계획이다.

명하고 조직배양을 통한 대량증식 방법으로 헛개 나무의 유전자원을 보존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업진흥연구소는 헛개나무지구가 주목해 소간염, 간암의 치료에 효과가 우수하다는 과대 광고로 인해 별종위기에 처해 있는데, 헛개나무 부위중 간질환 및 속취해소 작용이 가장 우수한 부위는 과별(과)로 나타나 약리효능이 적은 부위인 목부, 수피, 잎 등의 부분 별한 채취로 인한 귀중한 약리자원의 헛개나무가 멸종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헛개나무는 중국, 일본, 우리나라에 분포하며 우리나라의 헛개나무는 외국종과 다른 우리나라만의 특산종으로 도별과 남별로 인하여 지금은 분포지역이 극히 제한된 희귀수이다.

고로쇠약수 채취작업 한창

3월말까지 채취가능

「신비의 생명수」로 불리는 고로쇠약수 채취작업이 한창이다. 화순군에서 지난달 12일 무후산 일대에서 약수 3만9천ℓ를 채취하여 1억1천만원의 소득을 올렸으며 올해는 4만여ℓ를 생산 1억2천만원의 소득을 올릴 방침이다. 지리산을 끼고 있는 구

배군에는 3월말까지 66만ℓ를 채취해 17억원의 소득을 올릴 예정이다. 암산 기술에서 자생하고 있는 고로쇠약수 4만7천여ℓ로 1억3천만원의 농가소득을 올릴 예정이다.

또 광양 백운산과 순천 조계산 지역도 지난해보다 다소 늘어난 2만5천여ℓ 정도를 채취해 각각 1억여원의 소득을 올릴 계획이다.

고로쇠약수는 경전을 전후로 생산되기 시작, 3월 말까지 채취 가능하다. 고로쇠수액의 위장병과 고혈압, 신장병, 비뇨기 계통 등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미네랄과 칼슘, 마그네슘 등의 성분이 다량 포함

재배기술 작약은 재배 1년차에만 비닐피복하는 관행과는 달리 2년 연속 흑색비닐로 피복재배하면 수량이 늘고 일손도 크게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농촌진흥원 의성작약 시험장에 따르면 재배 1년차에는 흑색비닐로 피복하고 2년차에는 무피복재배하는 관행의 경우 10a(3백평)당 수량은 1천1백87kg이고 제조작업에 따른 노동력은 42.3시간이 소요됐다.

이에반해 흑색비닐로 2년 연속 피복재배하면 10a당 수량은 10% 늘어나 1천3백2kg, 제조노동력은 30.1시간으로 관행에 비해 28.8%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년 연속 무피복 재배했을때 수량은 7백56kg에 불과했고 제조노동력은 42.7시간이나 소요됐다.

내방

△배명철 고문 △박만중 고문 △문대규 부회장 △정형호 부회장 △황인구 부회장 △이용용 이사 △김동현 이사 △이문섭 이사 △한영환 이사 △배성환 이사 △권준희 부장 △광역시 지부장 △김성배 경기 지부장 △이인기 경기포천군 사무소장 △허수강원춘천시 사무소장 △최상환 경북경주시 사무소장